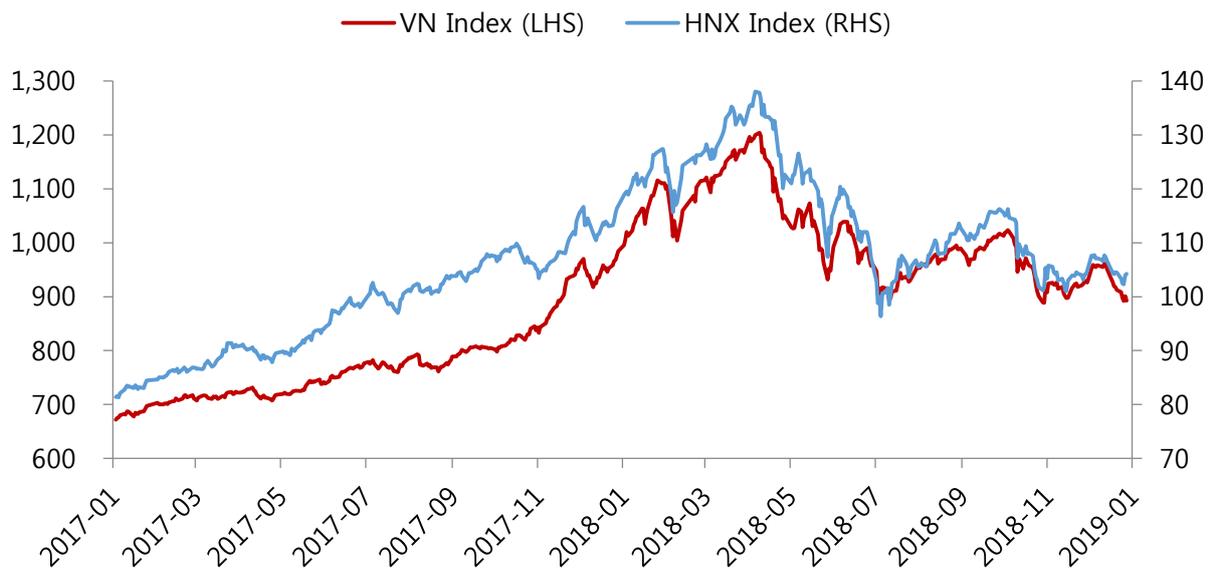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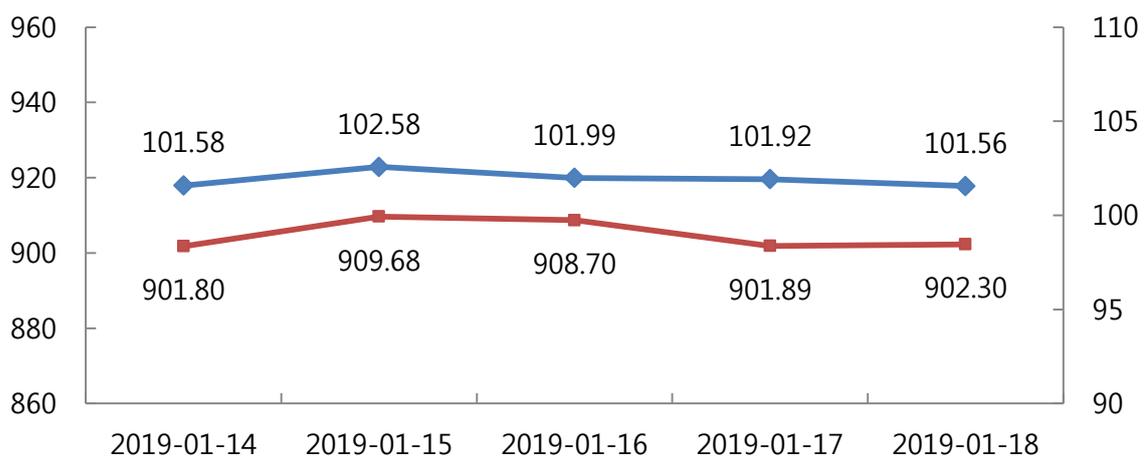


1. 주식시장 뉴스

■ 연간 주식시장 지수 (일별 종가 기준)



■ 주간 주식시장 지수 (일별 종가 기준)



■ 주중 주식시장 개관

이번주 베트남 주식시장은 비교적 완만한 등락을 거듭했다. VN 지수는 금요일 902.30 포인트로 마감해 지난주에 비해 0.41 포인트 하락했으나, 900 포인트 선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HNX 지수도 역시 101.56 포인트로 마감해 지난 주보다 0.31 포인트 낮아졌다. 종목별로는 우량주들 및 금융주가 좋은 모습을 보였으나, 증권, 에너지, 부동산 주 등은 부진했다.

■ 개별 기업 뉴스

○ 왓슨스, 호치민시에 첫번째 매장 오픈해

왓슨스가 호치민시 1군에 첫번째 매장을 오픈했다. 왓슨스는 30%에 가까운 연간 매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베트남 화장품 시장을 잠재 수익 시장으로 간주하고 있다.

현재 베트남은 화장품의 수요는 높지만, 공급이 이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계 화장품의 주요 판매 유통 채널은 온라인 매장과 보따리상, 소규모 매장이다. 베트남 에센셜 오일 아로마 화장품 협회에 따르면, 뷰티케어 산업은 2016년 12억 달러의 가치를 보였다.

○ 베트남 브랜드 가치 상위 5개 기업, 작년보다 브랜드 가치 23억 달러 증가해

2018년 베트남 브랜드 가치 상위 5개 기업의 가치 총합은 81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2017년보다 23억 달러(39%) 증가한 수치라고 Brand Finance가 추정했다.

작년 가장 높은 브랜드 가치를 지닌 기업은 Viettel로, 2017년 25억 7천만 달러에서 9% 증가한 28억 달러를 보였다. 2위는 Vinamilk로 작년보다 39% 상승한 19억 달러를 기록했다. 재작년보다 브랜드 가치가 84% 증가한 VNPT가 13억 4천만 달러로 3위에 위치했다. 4위와 5위는 Vinhomes와 Sabeco로, 각각 11억 8천만 달러, 9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2. 주요 경제 동향

■ 2018년 자동차 시장 크게 성장해

베트남 국내 자동차 시장이 2018년 5.8%의 인상적인 성장률을 보였다. 베트남 자동차 제조업 협회에 따르면, 승용차 매출은 27.7% 오른 반면 상업용 차량과 특수목적 차량의 매출은 각각 19.2%와 48.5% 하락했다.

베트남에 운송되는 차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시행령에 의해 수입은 크게 영향을 받았으며, 이는 베트남 국내에서 생산 및 조립된 차량이 시장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Thaco, Toyota, Ford, Honda가 시장을 주도했다. Thaco는 2017년보다 7% 오른 96,127대의 차량을 판매해 1위에 올랐으며, 시장점유율 34.7%를 기록했다. Thaco에 뒤를 이은 Toyota는 베트남 자동차 시장의 23.8%에 달하는 65,856대를 판매했으며, Honda는 27,099대를 판매해 시장점유율 9.8%를 차지했다. 반면, Ford는 2017년에 비해 14% 하락한 24,636대의 판매량을 기록했으며, 시장점유율은 8.9%에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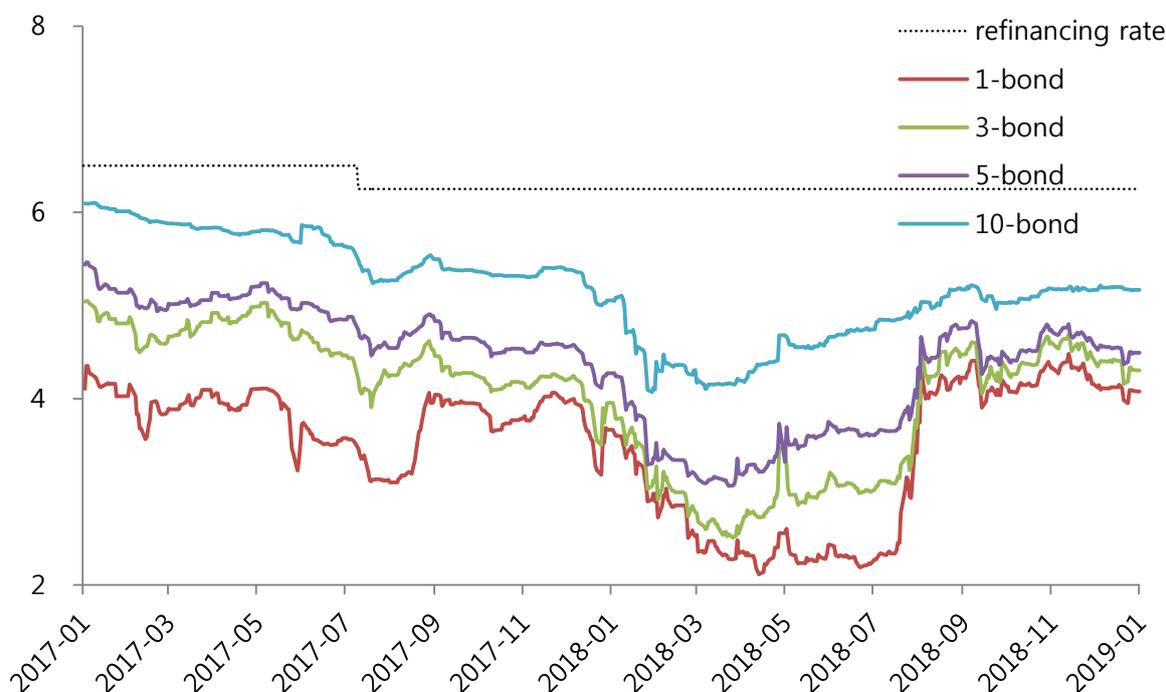
■ 베트남 스타트업, 2018년 9억 달러 투자 유치

하노이 기반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Topica Founder Institute에 따르면, 2018년 베트남 스타트업 업계는 92건의 거래를 통해 8억 8900만 달러를 유치했다. 이는 같은 거래 건수를 기록한 2017년 2억 9100만 달러에 비해 약 3배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상위 10개 거래의 규모가 7억 3400만 달러를 기록해 총 거래 가치의 83%를 차지했다. 이에는 엔터테인먼트 그룹 Yeah1 1억 달러와 전자상거래 플랫폼 Sendo 5100만 달러, 교육 테크놀로지 그룹 Topica의 5000만 달러가 포함된다. TFI에 따르면, 2018년 가장 많은 투자자본을 끌어들이는 상위 5개 영역은 핀테크, 전자상거래, 트래블테크, 물류 및 에듀 테크 영역이었으며, 핀테크가 8건의 거래에서 1억 1700만 달러를 기록해 1위를 차지했다. 전자상거래는 2017년 21건의 거래에서 5건의 거래로 줄었지만, 1억 400만 달러를 기록해 2위를 기록했다. Vntrip, Luxstay, Atadi, Vleisure 등 8건의 거래에서 6400만 달러를 유치한 트래블 테크 영역이 3위에 랭크됐다. 물류 및 에듀 테크 영역은 5천만 달러 상당의 3-4건의 거래를 유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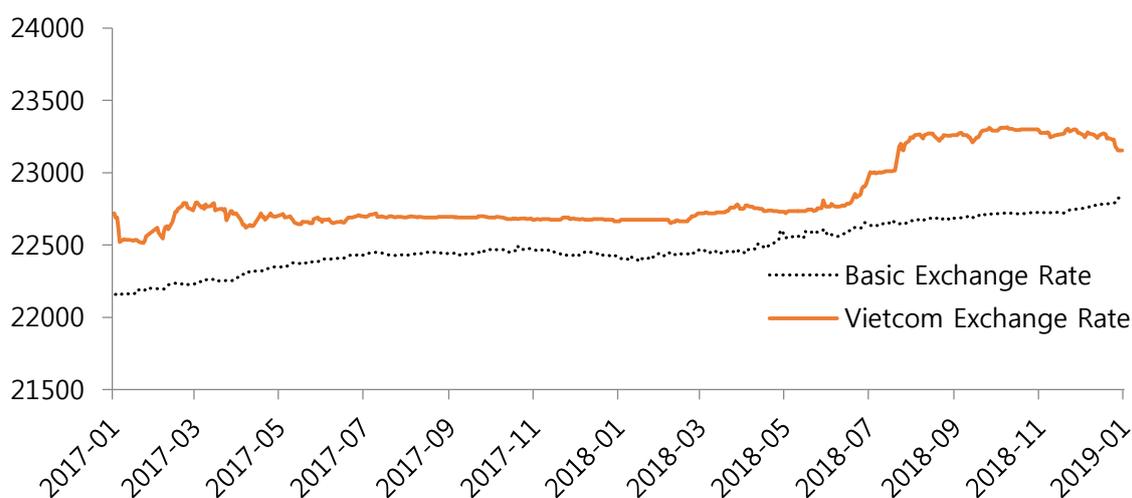
3. 금융 시장 동향

■ 기준 금리 및 국채 금리(SBV, Vietnam Government Bond Rate, %)



■ 환율(Vietcom Bank Exchange Rate, USD Sell Rate, VND/USD)

2018-01-18	Buying	Transfer	Selling
VCB Exchange Rate	23,145	23,155	23,245



■ Vietcombank, 2019 년 외국인 지분 제한 완화 정부 승인 요청 계획

Vietcombank가 올해 외국인 지분 제한 완화를 위한 정부의 승인을 구할 계획이다. 현재 베트남 중앙은행은 Vietcombank의 최대 주주로서 77.1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 지분 비율은 총 20.79%로, 일본 Mizuho 은행이 15%로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2018년 12월 28일 중앙은행은 싱가포르 국부펀드 GIC와 Mizuho 은행에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Vietcombank의 정관자본금을 39조 5천억 동(17억 달러)으로 증자하는 제안서를 승인했다. 계획에 의하면 GIC는 2.55%의 지분을 보유하고 Mizuho 은행이 나머지를 보유해 15% 지분을 유지할 계획이다.

■ 베트남, 주식 시장 합병계획 폐기해

재무부가 2020년까지 새롭게 설립할 예정인 베트남 주식거래소 하에서 호치민시 주식거래소와 하노이 주식거래소가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하노이에 본사가 위치할 새 회사는 각 거래소의 정관자본금을 합친 금액인 3조 동(1억 2900만 달러)의 정관자본금을 가질 예정이다. 베트남 주식거래소는 두 주식거래소의 주식 상장 및 거래, 주식시장 관리 및 감독 등에 관한 규정을 발행할 계획이다.

4. 부동산 시장 동향

■ VBSP, 공공 지원 주택 대출 이율 4.8% 제안해

베트남 사회정책 은행(VBSP)이 총리실에 2019 년 공공 지원 주택 구입, 임대 혹은 주택 건설, 개선, 보수 등을 위한 대출에 대해 4.8%의 우대 이율을 적용하자는 제안서를 제출했다.

VBSP 부이사 Nguyen Lan Phuong 은 2019 년 공공 지원 주택 프로그램 예산 자본금은 1 조 3200 억 동(5676 만 달러)을 넘으며, 이 중 6630 억 동은 국가 예산으로 조달하고 나머지 받은 VBSP 가 조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5. 한국 기업 동향

■ 호텔신라, 새 브랜드 '신라 모노그램'으로 베트남 진출

호텔신라가 면세점에 이어 호텔업에서도 본격적으로 해외에 진출한다. 호텔신라는 "이르면 올해 말 베트남 다낭을 시작으로 동남아시아, 미국, 중국 등 해외 10 여 곳에 진출해 글로벌호텔로 도약할 계획"이라고 15 일 밝혔다.

'신라 모노그램 베트남 다낭'은 신라호텔이 위탁운영 하는 형태로, 40 년간 운영 노하우를 집약해 이르면 연내 선보일 예정이다. 베트남 중부의 광남성 동부해안 농녹비치에 있으며 지상 9 층 건물에 총 300 여개의 객실로 조성된다. 위탁경영은 소유한 회사가 호텔경영 노하우가 있는 업체에 호텔 운영을 맡기는 방식이다. 호텔신라로서는 대규모 투자에 따른 사업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브랜드와 호텔 경영 노하우를 수출해 안정적인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More information:

<https://www.yna.co.kr/view/AKR20190115030200030?input=1195m>)

■ 롯데그룹, 100 개 베트남 신생 기업에 투자

베트남 최대 베트남 실리콘 밸리 액셀러레이터(VSVA)는 롯데그룹이 초기 신생 기업에 투자하도록 승인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향후 3 년 이내에 약 100 개의 베트남 신생 기업에 투자 될 것이며, 5 ~ 7 년간의 계획으로 진행 된다고 한다. 롯데그룹의 초기 투자 금액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VSVA 는 4 년 전부터 베트남 과학 기술부의 베트남 실리콘 밸리 (Silicon Valley) 산하 기술 상용화 계획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Scheme) 사업 추진 프로그램이다. VSVA 는 롯데액셀러레이터와 같은 해외 펀드의 참여를 통해 더 많은 창업 그룹을 지원하기위한 투자 금액을 늘리고 베트남 기업 창업의 기회를 국제적으로 확대 할 방침이다.

(More information: <http://www.seoulwire.com/news/articleView.html?idxno=48419>)

본 뉴스레터의 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restpine@gmail.com / rest@jplaws.com +84-96-280-6012

법무법인 제이피의 뉴스레터는 베트남 경제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저희 사무소의 법률 자문 또는 공식적 견해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본 뉴스레터의 수신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jplaw@jplaws.com 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